

9.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의 독립변수의 개수의 차이는 항상 1이다.
- ② ㉢은 어느 지역의 평균 온도와 같은 영역에, ㉣은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와 같은 영역에 사용될 것이다.
- ③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신약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때 p-값이 0.01인 경우 '신약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된다.
- ④ 회귀분석으로 얻은 그래프에서 관측값의 분포가 X축과 평행한 형태일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고, Y축과 평행할 경우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관측되지 않는다.
- 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통하여 회귀식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p-값이 0.05를 넘을 경우 두 가설 중 귀무가설이 채택된다.

1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명상하기와 산책하기가 시험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갑이 얻어낸 회귀식과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두 독립변수 모두 단위는 시간이고 종속변수의 단위는 점임.)

구분	명상하기	산책하기
회귀식	$Y=10X+24$	$Y=-14X+80$
독립변수	하루에 명상하며 보내는 시간	하루에 산책하며 보내는 시간
p-값	0.015	0.07

- ① 갑이 하루에 명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3시간일 경우 시험에서 54점을, 하루에 산책하며 보내는 시간이 1시간일 경우 시험에서 66점을 실제로 맞게 됨을 알 수 있겠군.
- ② 갑은 회귀분석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 대해서 조작화 과정을 거쳤겠군.
- ③ 명상하기와 시험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회귀식은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고, 산책하기와 시험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회귀식은 음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었겠군.
- ④ 명상하기와 시험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회귀식의 관계가 산책하기와 시험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회귀식의 관계보다 더 발생하기 용이함을 알 수 있겠군.
- ⑤ 귀무가설이 채택되는 회귀식은 산책하기와 시험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회귀식임을 알 수 있겠군.

11. 문맥상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② ㉡ :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다른 사례나 분야에 적용함.
- ③ ㉢ : 대상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밝혀 말함.
- ④ ㉣ : 사물이나 일에 가치나 의의 따위를 붙여 줌.
- ⑤ ㉣ : 작품, 의견, 제도 따위를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 씀.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이어졌던 과거 시험은 한(漢)의 멸망 이후 수백여 년 간 지속되었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해낸 수(隋)의 수 문제 때부터 세습 귀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새로 사족(士族) 지식인을 뽑고자 시행하였다. 과거 시험은 주로 작문 능력과 고전에 대한 이해력을 중점으로 시험했으며, 중국 내에 사대부 계층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는 이후 고려 시대에 전파되었다.

최초의 과거 시험은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雙冀)가 광종에게 건의하여 시행되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는 시험을 통해 학문적 소양을 쌓은 관료를 선발함으로써 공신 세력을 제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치러졌으나 실제 역사 속에서 그 주기는 변칙적이었다. 고려의 과거제는 천인과 향·소·부곡에 거주하는 주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이외의 양인층 이상은 모두 응시가 가능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나뉜다. 제술과는 문장을, 명경과는 유교 경전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 시험하였는데 고려 시대에서는 제술과의 능력을 더 높게 샀다. 향시 없이 중앙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던 잡과는 기술관 선발을, 승과는 승려들에게 승계를 수여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고려 시대의 과거제는 향시, 회시, 전시로 나뉘는 송(宋)의 과거제와 달리 계수관시, 사마시, 예부시로 나뉜다. 11세기 현종 이전까지만 해도 예부시만 시행하다가 계수관시, 사마시, 예부시를 실시하는 제도에 이르렀다. 우선, 계수관시는 지역에 따라 응시하는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 계수관시는 개경에서는 개경시를, 지방에서는 향시를 실시하였고 합격하면 국자감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국자감시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본시험에 해당하는 예부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때, 국자감 학생들은 별도 시험인 감시를 치른 후, 합격하면 예부시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종적으로 관리에 임용되려면, 예부시에 합격하여야 했다. 이외에도, 정규 시험은 아니었지만 국왕 앞에서 예부시 합격자의 순위를 매기는 특별시험인 ㉠복시도 실시하였다.

과거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를 선출하기도 했는데 재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천거와 일정 품계 이상의 고관이 자손을 합격시키는 음서가 있었다.

(나)

조선 시대의 과거제는 소과,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뉜다.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소과는 생원·진사시로도 불리며 시험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를 평가하는 생원시와 작문 시험인 진사시로 나뉘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생원을 더 존경하였으나, 후기에는 정반대의 경향이 목도되었다. 문과는 중앙의 문관들을 선출하는 시험, 무과는 무인들을 선출하는 시험으로 문과보다 제한이 완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였다.

그렇다면, 실제 각 시험들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우선, 소과에서는, 초시에 각 도 별로 할당된 인원을 뽑은 후, 복시에서 최종적으로 생원과 진사를 ㉡뽑았다. 이때 두 시험에 모두 붙은 경우 양시라 하였다. 생원과 진사는 하급 문관에 임명될 수 있었고, 조

선의 최고 교육 기관이었던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또한, 이들은 성균관에 진출한 이후 일정 점수 이상을 달성해야 응시할 수 있는 관시를 통해, 문과 초시 진출에 유리한 혜택을 부여받았다. 한편, 생원·진사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문과는 양인이라면 누구든 응시가 가능했다.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로 나뉘는데 초시와 복시에 모두 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금이 친림하는 시험인 ㉠전시를 실시하였다. 마지막 단계의 시험에서는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 병과로 나뉘는데 수석 합격자인 장원 급제자부터 갑과를 부여하고, 장원 급제자부터 중6품에서 시작하여 점점 시작 품계가 낮아진다. 이와 달리, 무과의 경우는 문과와 달리 신분상 제약을 완화하여 무관의 자손이나 향리, 일반 서민 등 무예에 재능있는 자들이라면 응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무과도 문과와 같이 세 단계를 거쳤고, 복시까지 합격한 이들을 전시에서는 모두 급제케 하되 문과와 달리 갑과, 을과, 병과만 부여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갑과의 경우는 기술자를 뽑는 시험으로 일반 서민이나 천민은 응시하기 어려웠고 양반은 천시하였기에 따라서 ㉡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신분이 세습되었다.

조선 시대의 과거제는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알성시 등의 시험의 두 부류로 나뉜다. 특히, 식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경사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임금의 권한으로 소과에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 중앙에서 개최하는 시험이 별시였다. 별시는 기존과 다른 형태로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시 개최의 빈도는 점점 늘어갔다. 시험 빈도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였기에 조정 진출에 있어 불리한 계층이 발생하였다. 이에 ㉢ 지방의 소과 합격자들은 성균관으로 상경하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에 의하지 않는 채용 방법도 있었다. 기존의 관리를 요직에 추천하는 천거, 2품 이상의 고관에 한하여 그들의 자손을 관직에 서용시키는 음서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과거제에도 한계는 존재했다. 조선의 신분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고,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이 속한다. 과거 시험은 법적으로는 모든 양인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양반가의 정실이 아닌 여성이 낳은 자식인 서얼 등의 특정 계층은 문과 응시를 할 수 없는 등의 차별이 만연했다.

1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시험은 세습 귀족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사족(士族)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수(隋)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 ② 향시, 회시, 전시로 나뉘는 송(宋)의 과거제와 달리 고려의 과거제는 계수관시, 국자감시, 예부시로 나뉜다.
- ③ 국자감 학생들은 예부시에 응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합격해야만 하는 시험이 존재하였다.
- ④ 고려 시대 과거제 초기에는 본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으로만 구성되었으나 11세기 현종 이후 계수관시, 국자감시, 예부시의 세 개의 시험을 치르도록 개편되었다.
- ⑤ 고려 시대 과거제의 모든 시험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응시가 가능하였다.

13. 조선 시대의 과거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원·진사시에 합격할 경우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과 관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모두 충족되었다.
- ② 증광시, 별시, 알성시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험이었고, 별시의 경우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개최 빈도가 늘어났다.
- ③ 문과 시험에서 문과 급제가 되려면 소과를 응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 ④ 문과는 무과와 달리 수석 합격자를 장원 급제자라 일컬었다.
- ⑤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는 자는 반드시 생원시와 진사시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국왕이 친림하여 유능한 사람을 찾아 관직에 임용시키는 방법이고, ㉡은 능력에 따라 응시자에게 관직을 차등 배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② ㉢은 예부시 응시자들의 순위를 가리고자 하는 방법이고, ㉣은 당시 기술에 능한 특정 계층이 지배층인 양반으로부터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다.
- ③ ㉡은 복시 합격자 중 뛰어난 일부만 관리로 선출하여 태평천하를 이루고자 하는 제도이고, ㉢은 지방 출신의 합격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한 노력이다.
- ④ ㉣은 당시 조선 신분제의 특성에 의한 현상이고, ㉡은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 용이하게 만드려는 지방 출신 유생들의 노력이다.
- ⑤ ㉡은 중앙에서 문관으로 임명될 자격을 부여하던 유일한 방법이고, ㉣은 당시 양반과 특정 계층이 결탁하여 이뤄진 조선 시대 특유의 양상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ㄱ. 무예에 능통한 이라면 무과에 응시하여 나라를 지키는 데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ㄴ.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이들 중 능력 있는 인사를 선출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ㄷ. 관리를 등용할 때에는 유교 경전에 대한 학문적 소양과 작문 능력을 시험하되 유교 경전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지닌 자를 더 우대하도록 한다.  
 ㄹ. 과거제는 관리를 등용하는 절차이므로 양인층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 ① 고려 시대 사회는 ㄱ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② 조선 후기 사회는 ㄴ에 동의하고, ㄷ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고려 시대 사회는 ㄱ에 동의하지 않고, ㄹ에 동의하겠군.
- ④ 조선 전기 사회는 ㄷ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고려 시대 사회는 ㄴ과 ㄹ에 동의하겠군.

16. <보기>는 신라 시대의 관리 채용 제도와 관련한 자료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신라의 관리 채용 제도와 관련한 자료들이다.

- ㉠ 신라 시대에는 천거의 형식에 따라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대로 귀족 신분을 세습한 이들이 선출되는 등의 폐단이 존재했고, 시험 성적이 관리 채용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 ㉡ 신라 후기에는 6두품 이하의 신분을 지닌 이들 중, 당(唐)으로 유학을 떠나 당(唐)의 빈공과에 응시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독서삼품과에 응시하여 관리로 채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신분제로 인해 본국 내에서 출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 신라 원성왕은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이를 관리로 선발하려 하였다. 당시, 유학에 능통한 정도에 따라 하품, 중품, 상품의 삼품(三品)을 부여하여, 관리로 삼고, 제자백가 저서에 능통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부여하는 삼품(三品)을 초월하여 등용하기도 하였다.

- ① ㉠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관리 채용에 있어 천거가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양상은 (가)의 최초로 과거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송(宋) 이전 시대의 양상과 유사하겠군.
- ② ㉡에 따르면, 신라의 6두품 이하의 신분을 지닌 이들이 본국 내에서 불이익을 겪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서열이 문과 응시에서 겪었던 차별의 양상과 유사하겠군.
- ③ ㉢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유교 경전의 이해도에 따라 삼품(三品)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초월하여 부여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문과 수석 합격자에게 갑과를 초월하여 장원 급제자라 일컫는 것과 유사하겠군.
- ④ ㉣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신분에 따라 오를 수 있는 관직의 범위가 달랐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나)의 문과 전시에서 성적에 따라 관직을 차등 배분하여 시작 품계의 범위를 다르게 했던 것과 유사하겠군.
- ⑤ ㉠에 따르면, 신라의 독서삼품과는 관리 채용에 있어 유교 경전의 이해도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가)의 명경과와 (나)의 생원시가 중시한 기준과 유사하겠군.

17.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목청 좋은 소리꾼이 가락을 뿔었다.
- ② 어머니께서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뿔었다.
- ③ 그는 벽에 박혀 있는 못을 억지로 뿔었다.
- ④ 이 지역 유권자들은 그를 차기 시장으로 뿔었다.
- ⑤ 여웃돈이 없음에도 그는 무리하게 새 차를 뿔었다.

-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광문(廣文)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루(鍾樓)의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을 추대하여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콩콩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인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쉼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하였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데리고 집에 돌아와 의복을 주며 후히 대우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하여 고용인(雇傭人)으로 삼게 하였다.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서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자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 부자에게 돌려주며,

㉡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 “나는 소인이다. 장자(長者)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날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宗室)의 빈객들과 공경(公卿) 문하(門下)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 대니, 공경 문하의